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



어릴 때 주일학교 가기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은하철도999 하는 시간이 예배시간이어서. 그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은 월요일마다 쪽지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그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등,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등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군대에 가서도 교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밥먹듯 빼 먹으며 달디단 주일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그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항상 목이 말라서 매일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 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머나먼 나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1990년 성탄절 밤, 눈 덮인 교정 쓸렁한 기숙사에 혼자 남아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고향지르고 싶을만큼 외로웠던 나는 그제야 겨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 누구세요?"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사랑의 두 팔 가득 벌려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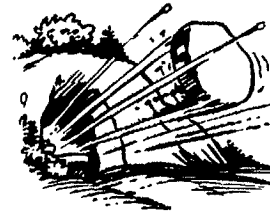
나는 그제서야 포근한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추억 생각하기▶ "벤허" 포스터

이 영화 포스터 기억나시죠? 이글거리는 눈빛의 찰튼 헤스톤, "주님! 과연 이것을 제가 만들었던 말입니까?"라고 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 땀을 쥐게했던 15분간의 전차 경기, 십자가 운명시 빛줄기 타고 흐르던 예수님의 핏물이 달는 순간 문동병이 고쳐지던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동생. 이런 수준높은 영화를 중학교때 단체관람시키는 우리나라는 문화의식이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하기정 건강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16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4월 2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1등같습니다. 부단히 노력했고,

힘들어도 달렸습니다.

결승지점이 보입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을 것을 생각하니...

곧인입니다. 1등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 갔지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두근거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왔니?

엄마가 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거라  
얼마나 위험한 나날을 사는데  
아무 준비없이 시작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또박또박 하거라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

# 부활주일에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찬양  
Resurrection praise

찬 송 150장  
Hymn

기도  
Prayer

성경봉독 마가 16:1-11  
Scripture Reading

설 교 '부활의 주님'  
Sermon

찬 송 159장  
Hymn

성경봉헌  
Bible Offering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응답송  
Response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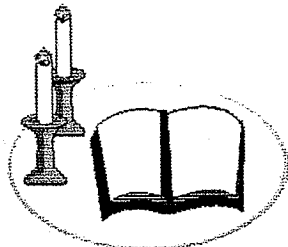
축도  
Benediction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고성일, 김봉희 집사 가정, 2절:다같이)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6	정덕수	김종우	차명은, 안희진	사카시다 키쿠오, 박일영
13	정희자	김진근	이주익, 박경주	원성호, 유종욱
20	지찬영	마경춘	고성일, 김봉희	윤형권, 이광희
27	최재학	민광호	주차안내부	이근평, 이재운



성가대

다같이

지찬영 권사

인도자

김성국 목사

다같이

박병민, 이기중 집사

인도자

다같이

김성국 목사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교우소식

\*신영숙 집사. 사업차 몇 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기 위해 지난 15일 출국

\*한정옥 집사. 3개월 예정으로 한국방문위해 23일 출국

\*김순화 집사. 이사하셨습니다 ☎448-2199 ☐13 Pukatea Ave.Albany

\*안희진 성도(현도). 남편 직장관계로 싱가포르 이주(20일).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신 사신 주!"

\*예배 후 식사를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3)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부활의 날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TAX Refund를 위한 헌금(2002-2003년)내역 증명서 발급

\*안내석에 개인별로 준비되어있습니다. \*기타 문의(이광희 장로)

5) 당회결의사항: 협동장로 장현중 장로

6. 주일학교 방학 Activity

1) 아동부: Waiwera Hot Pool <일시> 22일(화)

<출발지> A팀: 오전 10시 교회 B팀: 10:30 윤한나 집사 자택

<지참물> 도시락, 수영복 <회비> \$10 <문의> 윤한나 집사

2) 학생부: Sports Day <일시> 22일(화) <장소> City Domain Museum 주차장

<모임> 오전 10:30- 오후 3:30 \*식사제공됩니다

7. Club 소개

1) Tracking Club: 한달에 한번씩 가까운 Tracking Course를 오르며 믿음의 교제와 중보기도 나눔(담당: 김반석 집사)

2) 영화 Club "가설극장": 한달에 한번, 흘러간 영화를 보며 옛 추억을 아름답게 재생하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모임.(담당할 교우의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8) 부활절 기념 영화 Club "가설극장"의 영화보기: "벤허"

<일시> 오늘 저녁 6시 <장소> AFI 소극장 (안내석에 비치된 안내문 참조)

<모임> 교회주차장 5:30(주차관계로 교회에서 VAN으로 이동)

\*훗날 자녀들이 '벤허' 하면 엄마아빠와 함께 본 추억이 떠오르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 ◀착한 시인들▶ 내가 만일

-안치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영화 오아시스! 심한 뇌성마비 여성과 전과자 이지만 착한 청년과의 사랑은 아무도 이해 해주지 않았습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르는 "내가 만일"..노래 중에 소녀는 환상중에 여느 정상인이 되어 둘이 함께 붙잡고 즐거워합니다.

사랑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극복되는 눈물겨움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채워진 부부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극복하게 합니다